

전남 서부권

마늘 한집 4만원대 '눈앞'

재배면적 줄고 수입산 공급중단 작년보다 3배 뛰어  
주산지 해남엔 줌도둑 ... 농민들 마늘밭 지키기 고심

최근 마늘값이 지난해 대비 3배가 량 뛰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목포 자유시장에 따르면 지난 해 한집(100개)당 8000~1만2000원에 거래되던 마늘값이 6월 들어 2만8000~3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는 상품의 경우 3만5000원을 웃돌고 있어 4만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로 해남군의 경우 지난해 재배 면적이 1236ha에 달했으나 올해는 1200ha로 줄었다. 무안군도 지난해 570ha에서 올해는 513ha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늘값 고공행진 여파로 마늘 주산지인 해남 송지·북평면 등지에서는 마늘 줌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밤마다 농민들이 마늘밭을 지키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 "심지어 밭에서 마늘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 뽑아놓은 마늘을 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량이라도



신고까지 하진 않지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 농민들이 밤마다 마늘 밭을 지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 해 배추과동에서 보듯이 가격이 오르면 돈이 된다 싶어 앞다퉈 심었다가 생산량이 늘어 한꺼번에 쏟아져 값이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완도군·한국환경공단 협약... 2021년까지 추진

완도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관내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올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주택 21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남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석면관리 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해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지원되는 비용은 한 동당 224만여 원으로 이는 슬레이트 지붕 132㎡를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다. 완도지역에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7800여동, 1만8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도군은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문조기자 ejchung@

지난해 대파값 강세에 올 과잉생산 우려  
전남도 재배 면적 줄이기 나서

올 겨울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남도가 농가들을 상대로 재배면적 줄이기에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6월호 농업관측)을 분석한 결과 올 겨울대파 재배의향면적이 전년보다 전국적으로로는 12.1%, 전남도는 12.8%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파 주산지인 진도지역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 1378ha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파 수급 불안을 크게 걱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재배된 대파는 2852ha로 이중 진도가 가장 많은 48%를, 신안은 959ha로 34%

를 차지했다. 이처럼 재배의향면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겨울 대파가 예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자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일선 시군과 농협 등에 지난해 수준의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파 등 수확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적정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웰빙식품 '진도 톳' 군인들 식탁에

郡 특산물 판로확보... 연간 6t 군납 확정

진도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해조류 '톳'이 군인들의 식탁에 오른다. 진도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진도 마른 톳의 군납이 올해 6t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7691ha에서 톳을 연간 1200t을 생산,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톳이 생산되는 진도군 조도면 지역은 남해와 서해 교차 지역으로 해양 오염원의 유입이 거의 없고 각종 무기질이 풍부한 청정 해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종진 진도군수는 "수협중앙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로 인해 진도

마른 톳의 군납이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진도군에서 생산된 청정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조류인 '톳'은 식물성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웰빙 식품으로 손꼽힌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보건소 의료취약시간 비상근무반 운영

해남군 보건소가 비상근무반을 운영, 의료취약 시간인 야간과 공휴일 응급환자 발생에 적극 대처한다. 또 1339(광주 응급 의료정보센터)를 통한 광주·전남 도내 응급의료기

관 24시간 안내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야간·공휴일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해 24시간 응급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민들

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평상시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야간 및 공휴일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대량의 응급환자 발생에도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장애 딛고 희망의 빵 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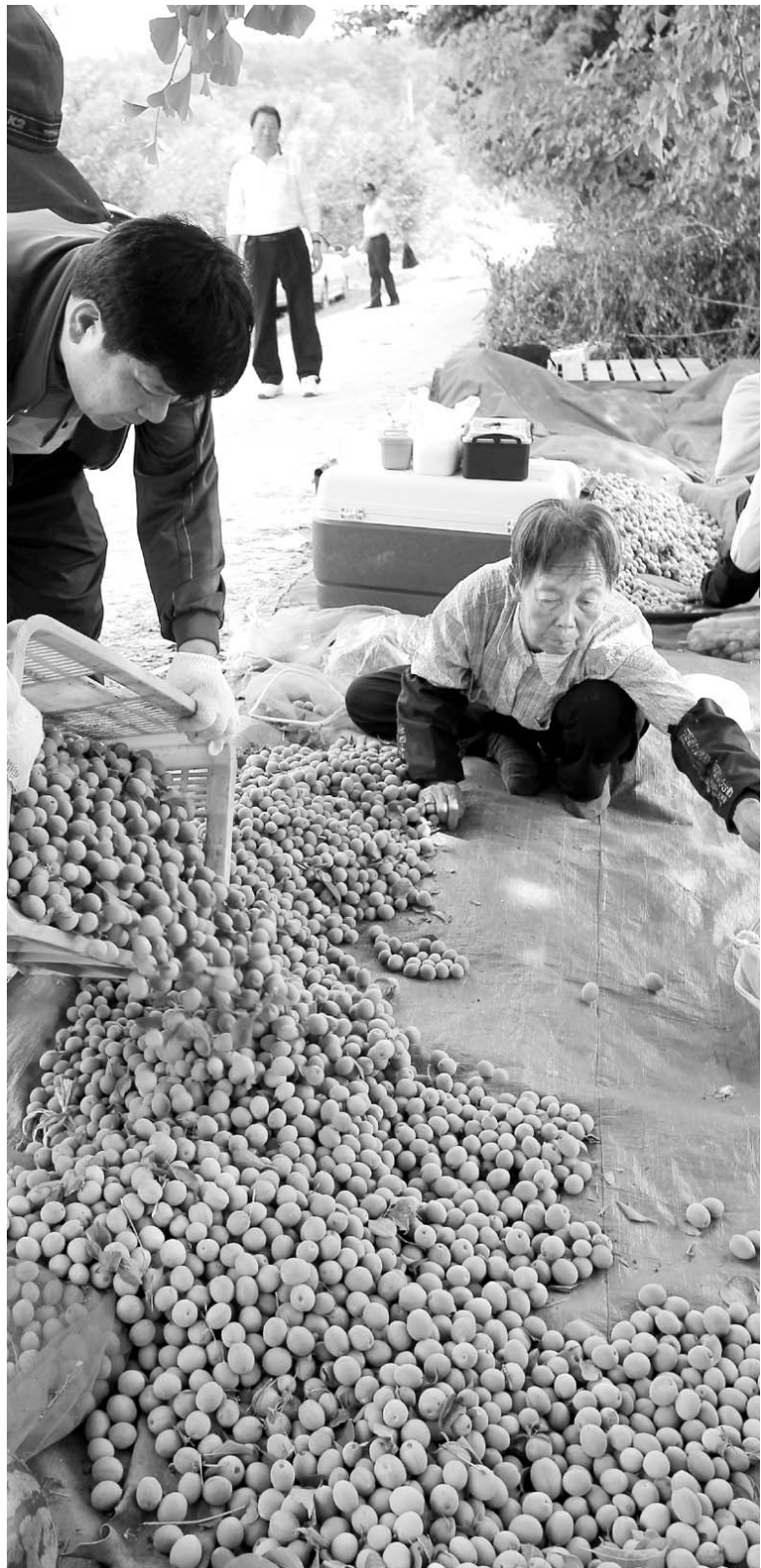
장애인 등 참여 해남 '워킹맘 베이커리' 개장

"열심히 빵을 만들어 제과점에 취직하고 싶어요" 해남 장애우들이 제과·제빵기술을 익혀 개장한 '워킹맘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만난 지적 장애우 박보영(34)씨가 밝히는 소망이다. 지난 15일 해남읍에 매장을 연 '워킹맘 베이커리'는 지난해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작한 사업으로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 4명의 장애우를 포함한 9명의 참여자들이 모였다. 특히 지난 2008년 군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장애인복지관 재할 프로그램에서 쿠

키 만드는 매력을 느꼈던 장애우들과 장애인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연이 된 이들이 모여 '워킹맘 베이커리' 사업단이 꾸려진 것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엔 성화대와 MOU를 체결하고 제과·제빵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해남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종문(31)씨가 주 3회 머물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매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카스테라와 식빵을 포함해 15가지 정도이며, 앞으로는 해남 우리밀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빵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청매실로 여름 건강챙기세요"



정읍시청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난 15일 정읍면 초강리 밭에서 청매실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서철 앞둔 군산 선유도 '물전쟁'

가뭄으로 제한 급수 ... 여름철 해마다 되풀이  
주민들, 물 때문에 관광객들 꺼릴까 걱정

피서철을 앞두고 군산 선유도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식수난이 올해도 여김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물과의 전쟁을 벌이는 선유도에는 1일 100t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지만, 주민과 관광객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랜 가뭄으로 선유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선유도 주민 이모(51)씨는 "지난 4~6월 3일 연휴기간에도 하루에 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섬을 찾았지만, 물이 떨어져 세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아우성이었다"면서 "지금도 2~3일에 한 번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 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횡집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43)씨는 "방조제가 개통된 지난해부터 섬 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어 올 여름 장

사에 기대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물 때문에 고생을 한 관광객들이 이번엔 선유도를 찾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늘리고 급수선을 띄우는 한편 다음달 4일 해수욕장의 개장되면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선유도 현지로 보내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무너도~선유도로 이어지는 연륙교 공사가 끝나는 2014년까지는 선유도의 물 부족 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무주 구천동 비경에 빠져보세요

무주군 구천동 관광특구 연합회(회장 양춘모)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국립공원 덕유산 줄기인 구천동 관광단지과 계곡 등지에서 '구천동 비경 33경의 운치와 멋에 흠뻑 빠져보세요'란 주제로 계곡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구천동 옛길 탐사

체험을 비롯해 맨손으로 송어 잡기, 송어 낚시대회, 초여름 밤의 낭만 콘서트, 노래자랑,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무주구천동 계곡은 국내 4대 계곡의 하나로 칠실 리에 걸쳐 이어지는 소와 담, 폭포가 울창한 숲 및

내일부터 축제 한마당  
철쭉 등 만발 꽃의 향연

풍부한 수량과 더불어 맛들어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5~6월 이면 계곡과 덕유산에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면서 꽃의 향연이 시작되고 층층나무와 산딸기나무 등 수많은 야생화가 만발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대표 작목 파프리카 호주 수출

남원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파프리카가 호주로 수출된다. 남원시는 16일 운봉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을 거친 파프리카 600상자(상자당 5kg)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 시는 지난해 운봉지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620t(240만 달러)을 일본과 대만에 수출했고, 올해는 700t(3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01년부터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현재 35 농가 17.7ha에 연간 1700여t을 생산 5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는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첨단 하우스시설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16년까지 30ha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50억원 이상 조수익을 올리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학교폭력예방 '어머니 정찰대' 20일 발대식

학교폭력 예방과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 '어머니 정찰대'가 출동한다. 사단법인 패트롤 맘(Patrol Mom) 전북지부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제복을 착용한 '패트롤 맘' 회원들은 학교·학원 주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놀이터·공원 순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를 맡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북 상추 등 친환경 채소류 모두 안전 판명

전북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판매되는 상추와 오이, 무 등 친환경 채소류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172개 항목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독일에서 시작된 슈퍼 박테리아때문에 채소

류에 대한 도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각종 채소를 섭취할 때 손을 반드시 씻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채소를 꼭 삶아서 먹으면 '아시네토박터균'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군산시, 취약계층 300여명에 여행 기회 제공

군산시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개별, 복지시설단체, 지자체 기획의 3개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상품 구매시 1인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개별 바우처의 경우 가족동반 여행시 동반가족수에 관계없이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 한우물영농조합 등 여성취업 활성화 협약

전북 새일지원본부와 김제시 소재 5개 업체가 16일 김제시 여성회관에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체결에는 심정연 전북 새일지원본부장, 임민순 사조

아성 이사, 최정연 한우물 영농조합대표, 조기신 농산무역 상무, 정지용 한푸드 대표, 전봉래(주)하삼 대표, 박현 김제시 인재양성과장, 협약체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